

## 광주시 6조 2817억원 전남도 9조 2023억원

### 내년 예산 역대 최대 편성

광주, AI 등 미래먹거리에 투자  
전남, 일자리·청년 사업에 중점

광주시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조281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 6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는 1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4조5939억원, 특별회계 1조3426억원이다.

광주시 본예산 규모는 2017년 4조389억원, 2018년 4조5139억원, 2019년 5조830억원, 올해 5조7124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기준 6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야별로 사회 복지·보건(3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26.1%), 교통·물류(18.1%) 분야 예산이 확대됐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8.1%)도 소폭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생 육아수당으로 488억원을 새로 편성한 점이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 대비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원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141억원) 등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정부 예산 718억원 등 893억원을 투입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924억원 대비 2304억원(24.9%) 증액된 1조1546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일반회계의 2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한 민선 7기 시정 의지를 반영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11대 대표산업 육성에는 전년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238억원을 배정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뉴딜,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하는 휴먼 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 사업 추진에는 656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내년에만 3734억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날 9조2023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12.8%(1조435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전남도 예산은 1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2548억원, 특별회계 9475억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 3677억원(4.45%), 농림해양 1조8014억원(21.8%), 관광문화 3334억원(4.04%), 보건복지 2조7188억원(32.94%), 교육 2331억원(2.82%), 지역개발 6380억원(7.73%), 주민안전 4573억원(5.54%), 환경 6681억원(8.09%), 일반행정 1조3644억원(12.56%)이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를 우선 반영했으며, 인구 청년 관련 사업과 일자리 창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9개 분야 미래 주요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12억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1억 5000만원), 남임부부 시술비(6000만원) 등 출산 및 인구 유입 장려책 등이 전면 배치됐다.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5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29억원) 지급도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전남동부권 통합정사 건립 사업비(200억원), 동부권 감염병 대응센터 건립 사업비(60억원)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공익직불제(2236억원), 친환경병원선 대체 건조(61억원),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복원사업(28억원), 호남권 평화 통일 센터 건립(48억원) 등이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 내년 광주 초·중·고생 2400명 감소...52학급 감축

내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이 올해보다 2400명 가량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엔 총 52개 학급이 감축된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은 총 17만 5800여 명으로 올해 17만 8200여 명보다 2400명 가량 준다.

내년 초등학생은 8만 5500여 명으로 올해 8만 6700여 명보다 1200명 가량 줄고, 고등학생은 4만 5200여 명으로 올해 4만 7200여 명보다 약 2000명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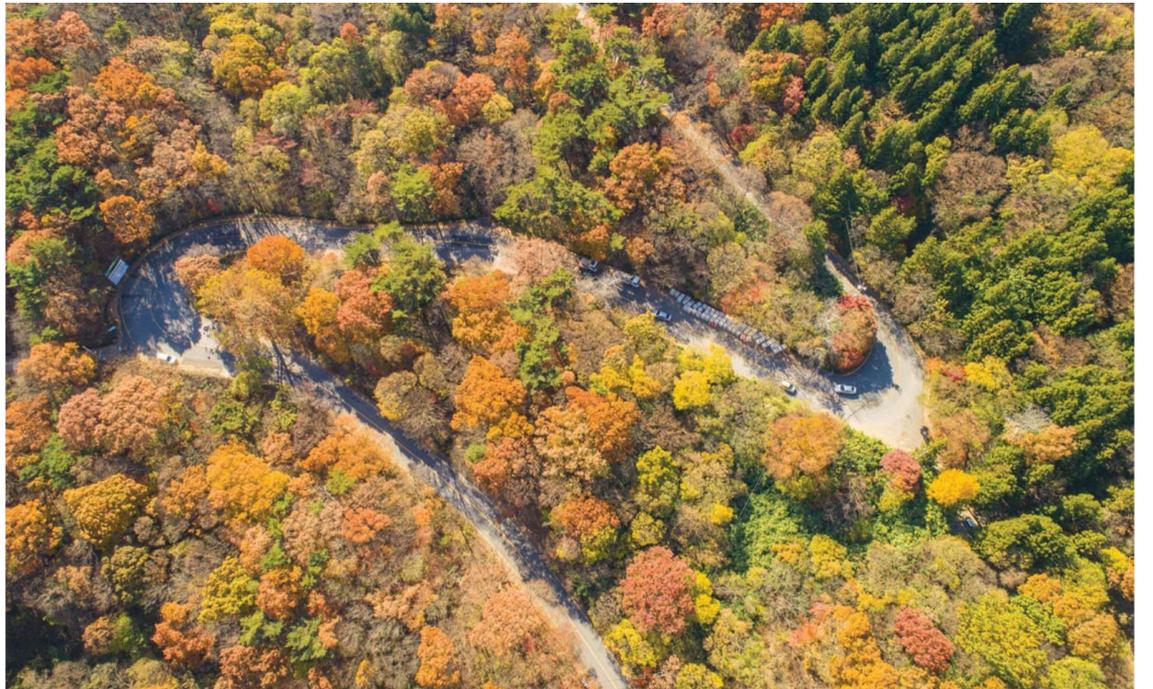
반면, 중학생은 4만 5100여 명으로 올해 4만 4300여 명보다 800명 가량 증가한다. 전체 중학생이 800명 가량 증가하는 이유는 내년에 졸업하는

현재 중 3학생 보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내년 입학생은 올해 입학생과 비교해 초·중·고 모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46개 학급, 중학교는 4개 학급, 고등학교는 2개 학급 등 총 52개 학급이 감축된다. 초·중·고등학생은 2022년엔 17만 2000여 명, 2023년엔 16만 8000여 명 등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해 교직원 정원 감축 등 교육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학급 정원 조정 등으로 학급 수 감축 여부는 탄력적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울긋불긋 오색단풍에 물든 무등산의 가을

10일 오후 광주 북구 금곡동 원효사로 올라가는 길목 주변에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어 있는 등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군 공항 소음 심한 15곳 영향도 조사한다

### 이달 내 착수...일정 조율 중 대책지역 지정 시 보상 전망

광주 군 공항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인접 지역에서 소음도를 조사하기 위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군 공항 소음 영향권에 든 광산구와 서구, 북구에서 각 지방자

치단체 협조를 받아 조사지점을 선정했다. 조사지점은 소음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구와 서구 각 6곳, 북구 3곳 등 총 15곳이다. 소음 측정 일정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 훈련 계획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현장 조사는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소음 영향도는 군 항공기 이착륙 때 측정된 소음도에 발생 횟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연속 7일간, 최소 2차례 이상 소음을 측정한다. 1차 측정은 이달 내 착수하고, 2차 측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점검한다. 지자체도 조사 종료 전 의견을 제출한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군 공항 주민은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29건의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9건이 종결됐고, 시민 4만8800명이 1654억원을 청구해 정부로부터 1353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한일관계 정상화 '주목'

### 박지원 국정원장 일본 방문, 스가 총리와 면담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문제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화일로인 한일관계가 스가 총리 취임이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교통통신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친서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지난 8일 일본을 방문했

며 지난 이틀 동안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내각정보조사관 등을 만났다.

박 원장과 약 20년간 '의형제' 수준의 관계를 이어온 니카이 간사장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관계에 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매우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충분히 신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박 원장과 만난 소감을 밝혔다.

박 원장은 스가 정권 발족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다. /연합뉴스

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갈등 해소되나 ▶11면  
KIA 타이거즈 '육성'이 만능 카드인가?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학원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8 인공초고지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동(대호 516(수원동))  
호남 서비스센터 (062)945-27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동(호남 602(광안 20(수원동))  
주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림동(호남 520(4-원동))

**정부 공인 표준 정비 및 부품**  
G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0.5, (도시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GLB 22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6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1.5, (도시연비: 10.3, 고속도로연비: 13.2),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50  
GLB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20kg, 자중하중, 복합연비(ℓ/㎞): 10.5, (도시연비: 9.5, 고속도로연비: 12.1), 4등급, 복합 CO2 배출량: 170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정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기 저항 계수(Cd)는 국내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